

남구, 어르신 복지 혁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오픈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월산동 소재 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 건물 2층에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돕는 놀이용품 대여시설이 문을 열었다.

남구는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놀이용품 대여시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 사례로 파악된다"며 "다양한 운동기구 및 치매예방을 위한 놀이용품 등을 지원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을 증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가 이곳에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마련한 이유는 한정된 복지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내에는 경로당이 249곳에 있는데, 각 경로당별로 놀이용품 및 실내 운동기구 구입 요청이 많아 제한된 예산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뿐더러 고가의 운동기구를 포함한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에는 한궁을 비롯해 접이식 탁구대, 소프트 게이트볼 장비, 미니 당구대, 볼링·술런 등 단체 운동 장비를 비롯해 치매 예방을 위한 퍼즐 게임과 놀이용품, 보드게임 등 21종 물품 213개를 갖추고 있다.

남구는 이곳 센터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며, 이달부터 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 인력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놀이용품 대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각 품목별 놀이용품의 보유 수량이 대개 10개 정도임을 감안, 인기 품목의 물품을 대여할 경우 각 경로당별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 대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물품 대여 신청시 경로당에서는 2개 종류 물품을 빌릴 수 있으며, 한달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된다.

놀이용품 대여 비용은 무료이다. /서기만 기자

서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내년 4월까지 건축물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과는 달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점검 의무 규정이 없어 소유자의 의지가 없으면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도시 한복판에 남아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4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3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인 민간 건축물 총 400여개동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차로 건축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5단계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안내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안전점검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사고수습지원과(062-360-4796)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청 사고수습지원과장은 "추가로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고수습지원과로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동구, 움직이는 마을복지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이달부터 관내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 내 사랑채 등 주민 공유공간에서 연계 진행하는 '움직이는 마을복지관' 사업을 사회보장특례지원구역(산수1·계림1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삶의 만족과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복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아우어빌리지(바람뚝·한지경대 만들기) ▲동구시니어클럽의 커피박업사이클링(커피 찌꺼기 재활용 체험) ▲동구노인복지관의 홀로 어르신 행복 증진 건강프로그램 등이다.

향후 동구는 빛고을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추가 협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관내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전화(☎062-608-2559)로 신청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사랑채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진행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들과 일자리,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는 이날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성장 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기업인들과 경제정책 발전방향 모색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들과 일자리,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는 이날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성장 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중소·벤처기업, 여성기업인,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소기업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지역경제 주체가 참석했다.

센터는 현장맞춤 애로상담 컨설팅 및 정책연계,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지역제품 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 등 추진 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광산구의 정책 및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더욱 지속하며 광산경제의 도약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첨단산단에 '스마트도서관' 개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첨단 산업단지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도서관으로 기기 내 수백 권의 장서가 비치돼 현장에서 바로 대출·반납이 가능하며 365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스마트도서관은 광주역에 이은 2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천 3백만 원을 들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층에 조성했다.

이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책 읽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산단 내 접근성이 높고 이용객 많은 광주지역본부에

스마트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북구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 또는 공공도서관 이용 앱인 '리브로피아'를 통해 회원증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책은 1인당 3권까지 최대 2주간 빌릴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평일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첨단산업단지의 1만 8천여 근로자를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민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1/3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희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땀방'...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